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9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99:1-3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27장(새 27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 31번(스크린참조)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극히 적은 일에도 주님께 하듯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깨닫게 하시어 존귀하게 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한마당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함에 있어서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 위에서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베드로후서 3:8-14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무엇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봉 헌(offering) 355장(새 323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539장(새 488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클리브랜드 한인회 주관 8·15 광복절 행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예배 후 행사장소로 이동해서 행사참여와 친교를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8월 13일(일) 오후12:30
 - 장소 : Brecksville Metro Park Meadow Area
3. 담임목사는 이번 주(월-금)에 휴가를 보냅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공부 및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13:1-7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아에 관련되어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달간 적용하고 함께 나누시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말씀묵상〉 베드로후서 3:8-14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 날이 아직 이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10절) 나에게 주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2.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11-14절) 나는 오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어 인간을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간의 시공간에 전혀 제약받지 않는 그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인간의 시간은 천년이 흐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인 ‘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은 짧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할 수 있으면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소유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즐기고 누렸던 것들, 심지어는 우리가 살았던 이 지구조차도 마지막에는 다 불에 풀어지고 녹을 것이라고 사도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 사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본향에서 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룩함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